

박규철 작사집

청산근|아근|랑



연변
인민 출판사

박규철가사집

청산리 아리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태학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青山里阿里郎: 朝鲜文 / 朴奎哲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7. 4

ISBN 978-80698-919-7

I. 朴... II. 朴... III. 歌词—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7) 第054057号

青山里阿里郎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6.375 字数: 150千字

标准书号: ISBN978-7-80698-919-7 (民文)

版次: 2007年5月第1版

2007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가사전문지 《해란강여울소리》가 이 땅에 고고성을 울리자 수많은 과외창작자들이 놓았던 붓을 다시 거머쥐고 이 푸른 《운동장》에 뛰어들어 자기들의 장기를 마음껏 뽐내고있다.

박규철선생이 바로 그중에서도 젊은이들 못지 않은 《로운동원》중의 한사람이라 하겠다.

1997년 가사 《어머님생각》으로 첫 스타트를 뀔 박규철선생은 가사창작의 험준한 《활주로》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를 헤아리지 않고 구슬땀을 휘뿌리면서 민족문화의 고봉을 향해 줄기차게 뛰었고 지금도 여전히 뛰고있다. 하여 그가 툭아오른 땀배인 발자국마다엔 주옥같은 글들이 반짝이면서 수많은 독자들을 흡인하고있다.

특히 박규철선생님께서 쓰신 가사들은 삶의 진실을 참담게 반영하였으며 시대의 높이에서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해란강여울소리》를 꾸려서부터 나는 박규철선생님을 알게 되었다.

그이는 언제나 현실앞에서 《도전》하는 《전사》였으며 전진할줄만 알고 후퇴를 모르는 솔직하고 열정적인분이였다.

하기애 내가 매번 화룡으로 갈라치면 한푼 보수도 없는 일에 것처럼 발벗고 앞장에 나서서 나의 일을 도와주였었다.

일찍 지상에 발표된 시와 시조들을 통하여 박규철선생님을

알기는 하였으나 몇년간 사귀여오는 과정에서 박선생이야말로 초불정신으로 민족문화발전사업에 자신을 헌신하고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실로 박규철선생님은 사회활동가(화룡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이며 조직자이며 시인이기도 하다.

그가 화룡시작가협회 부주석을 담임하면서부터 시안의 문학창작활동은 전에없는 호황기를 맞이하였다고 본다.

그는 항상 자신이 창작에서 솔선수범하면서 다른 과외창작자들로 하여금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써내게 하여 그중 많은 작품들이 두툼한 상을 받아안게 되었다.

이는 박규철선생님의 추동하에 전체 회원들이 한사람같이 땀 땀 뭉쳐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길에서 쌓아온 눈부신 《금자탑》이라고 말할수 있다.

워낙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즐긴 박규철선생님은 목청이 하도 좋아 그 어느 모임장소에 가거나 한곡조 뽑을라치면 피꼐새가 부러워할만큼 앞뒤산이 찌렁찌렁하게 울리곤 하였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반대도 물리치고 노래부르기에 정신을 팔다보니 마을에선 《풍각쟁이》가수로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학교시절에는 발품금도 곧잘 다루어 음악교원의 사랑을 독차지하다싶이 하였다 한다.

그후 현구동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가사창작에 뛰어들게 되었던것이다.

박규철선생님은 《해란강여울소리》의 발행원이자 조직자이며 화룡시가사협회 회장직을 맡고있다.

매달 100여부 넘는 《해란강여울소리》를 품에 안고 시안의 각 기관, 학교, 개인호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매 호에 실린 가사들을 한편도 빠짐없이 읽어보는 과정에

서 지난날 자기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생활편단들이 가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선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서만이 강한 령혼이 탄생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일에 대한 령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수 있다.》

이 명언은 아마 박규철선생님과 같은분들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박선생님께서 쓰신 가사들이 수많은 이름모를 작곡가들의 심금을 마구 흔들어줄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그가 쓴 가사에 곡을 붙인 아동가요, 성인가요들이 매번 콩쿠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였는데야...

동요 《구기자》(임룡길 곡), 동요 《반달령》(리분옥 곡)은 연변TV방송국동요제 우수상으로, 동요 《게으른 베짖이》(류재춘 곡)도 연변TV방송국동요제 최우수상, 《연변음악》, 《연변교육》, 《소학교5학년교과서》 등에 려재, 한국방문공연에서 대환영받았음. 그리고 동요 《너와 나 마음발에》(리철수 곡)는 연변TV동요제 우수상, 동요 《부림없는 내 나라》(최훈 곡)는 전 주 문화교육 문예콩쿠르 2등상, 동요 《깎깎술》(류재춘 곡)은 전 주 문화교육 문예콩쿠르 2등상, 동요 《키꼭다리접시꽃》, 동요 《땅딸기》 등은 연변TV청소년동요제 우수가사로 선정, 동요 《부림없는 내 나라》는 흑룡강조선말방송국 우수가사로 선정되었다.

성인가요로서 《내 고향 선경대》(유춘섭 곡)는 연변방송, 연변TV방송 매주일가로, 《선경대》컵우수상, 《만천성은 좋아라》(최동혁 곡)는 연변인민방송, 연변TV방송 매주일가로, 《물에 비낀 원앙》(유춘섭 곡)은 화룡TV방송, 《청산리아리랑》(유춘섭 곡)은 연변인민방송, 《석양의 배사공》(황양목 곡)은 전 주 문예콩쿠르창작상, 《동년의 꿈》(허설화 곡)은 연변인민방송 매주일가, 년말결산우수종목, 《허이허이 넘던 고개》는 예술세계 잡지에 발표되었고 《대골령 소골령》(김봉호 곡), 《내 고향 진

달래》(김봉호 곡)는 여러 신문과 잡지에 발표, 《정에 울고》(리하수 곡)는 연변TV방송 매주일가, 《정에 울고》(유춘섭 곡) 연변방송, 연변TV방송, 《정에 울고》(정명호 곡)는 예술세계잡지, 《우리는 하나의 단군후손》(류재춘)은 한국 《고국소식》 등에 발표되었다.

박규철선생님은 이처럼 짧은 기간에 거두어들이는 풍만한 열매들은 그이의 게으름없는 노력-피땀의 결정체라고 몇몇이 말할 수 있다.

그의 매 한편의 가사들은 모두 실생활속에서 소재를 찾았기에 것처럼 진실성이 다분히 풍기고있으며 민족의 넋이 스며들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찡-저려나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박규철선생님은 비록 70고령을 넘겼지만 나젊은 문학도들 못지 않게 정열을 불태우고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며 마음이다. 또 글은 작자의 피이며 넋이라고 할진대 박규철선생님의 정신세계는 그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이런 밝고 깨끗한 안광, 참신한 자세로 들끓는 현실생활속으로 계속 육박해간다면 불원한 장래에 또 하나의 력작이 태어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 바라노니 아무쪼록 옥체건강하시여 주옥같은 글을 많이 써 민족문화발전에 더 큰 업적을 쌓아가기를...

가사전문지 《해란강여울소리》편집부

주필 황상박

2006년 12월 31일

차 례

❖ 1. 향토편

대골령 소골령	김봉호 작곡 / 3
내 고향 진달래	김봉호 작곡 / 6
청춘거리 연길이여	유춘섭 작곡 / 9
어서 오라 돌아오라	임룡길 작곡 / 11
대골령 봄노래	최 훈 작곡 / 14
선경대는 명승일세	유춘섭 작곡 / 16
송월호 감로수	류재춘 작곡 / 18
쌀주머니 복주머니	류재춘 작곡 / 20
내 사랑 여울소리	류재춘 작곡 / 22
선경대는 명승일세	김철룡 작곡 / 24
청산리아리랑	유춘섭 작곡 / 26
만천성은 연변의 자랑일세	최동혁 작곡 / 28
산간의 사랑새야	김철수 작곡 / 30
연변진달래	한성호 작곡 / 32
청산골 살리라	류재춘 작곡 / 34
내 고향	최 훈 작곡 / 36
내 고향 선경대	유춘섭 작곡 / 38
꽃보라 불보라	류재춘 작곡 / 40
민속놀이 좋을씨구	장영남 작곡 / 42
고향길	최 훈 작곡 / 45

언제나 가고파라	류재춘 작곡 / 47
고속도로	류재춘 작곡 / 49
허이허이 넘던 고개	김동하 작곡 / 51

❖ 2. 인정 인생편

황초령 친구야	임룡길 작곡 / 55
내 사랑 도라지야	임룡길 작곡 / 58
반달령	유춘섭 작곡 / 61
반달령	류재춘 작곡 / 64
별처럼 빛나거라	류재춘 작곡 / 66
기쁨 가득 웃음 가득	김선희 작곡 / 68
그리운 고향	류재춘 작곡 / 70
붙어 붙어 대학에	황양목 작곡 / 72
아침이슬	류재춘 작곡 / 75
아침이슬되리라	장영남 작곡 / 77
우리는 하나의 단군후손	류재춘 작곡 / 79
웃으면서 사는거야	신 룡 작곡 / 82
동년의 꿈	박춘애 작곡 / 84
석양의 배사공	황양목 작곡 / 86
그렇게 사는거야	장영남 작곡 / 92
정말 정말	최 훈 작곡 / 94

❖ 3. 사랑편

정에 울고	유춘섭 작곡 / 99
정에 울고	전명호 작곡 / 101
정에 울고	리하수 작곡 / 102
손잡고 함께 가자	김선희 작곡 / 104
그리움이 비가 되어 내리네	류재춘 작곡 / 106

잇으려고 했는데	류재춘 작곡 / 108
물에 비긴 원앙	유춘섭 작곡 / 110
그리움에 지쳐서	유춘섭 작곡 / 112
기다림	정태산 작곡 / 114
난 싫어	류재춘 작곡 / 116
덜먹총각 타는 마음	김선희 작곡 / 118
안해	류재춘 작곡 / 120
첫사랑	박춘애 작곡 / 122
리별	류재춘 작곡 / 124
눈물어린 정거장	류재춘 작곡 / 126
알미워 알미워	최 훈 작곡 / 128
봉선화야	류재춘 작곡 / 130
빈 자리	장영남 작곡 / 132
그래도 못잊어	박춘애 작곡 / 134
그대 만일	류재춘 작곡 / 136
첫사랑 단풍잎	류재춘 작곡 / 138
언제나 오려나	황일선 작곡 / 140
그대는 장미꽃	류재춘 작곡 / 142
뼈꼭새는 울고운다	황일선 작곡 / 144
내 사랑 찾아가자	황일선 작곡 / 146
헛 욕심	류재춘 작곡 / 148
사랑해 고마와	장영남 작곡 / 150
별도 무정 정도 무정	장영남 작곡 / 152

❖ 4. 동요편

게으른 베짖이	류재춘 작곡 / 157
반달령	리분옥 작곡 / 159
왜 내 동생 쫓나	류재춘 작곡 / 162

801	너와 나 마음밭에	리철수 작곡 / 164
801	똥똥이	류재춘 작곡 / 166
811	엄마 보고파	류재춘 작곡 / 168
811	살기 좋은 내 나라	최 훈 작곡 / 170
811	땅딸기	류재춘 작곡 / 173
811	부림없는 내 나라	류재춘 작곡 / 175
820	키꼭다리접시꽃	류재춘 작곡 / 177
821	키꼭다리접시꽃	장영남 작곡 / 178
831	구기자	임룡길 작곡 / 180
838	개구리가 우네요	박춘애 작곡 / 182
838	봄노래 불러요	박춘애 작곡 / 184
839	감짜술	류재춘 작곡 / 186
839	약속	한성호 작곡 / 188



대골령 소골령

김봉호 작곡



하 늘 가 에

하 늘 같 이



대 골령 아 뽕 뽕 뽕 뽕 뽕 뽕 아

높 은령 아 뽕 뽕 뽕 뽕 뽕 뽕 아



아 구름가애소 골 령 아 아 리 랑 에

아 굽이굽이굽 이 마 다 한 이 서 름



눈 물 신 고 허이허이 념 던 고 개

굽 이 굽 이 칠 십 리 험 한 고 개



4

대골령 소골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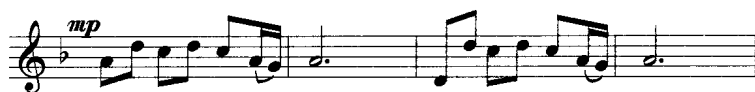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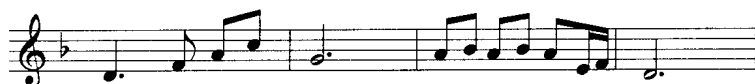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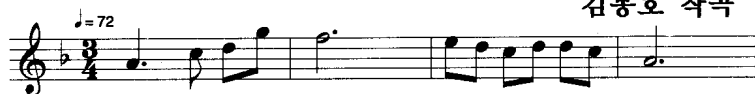
1. 하늘가에 대골령아 뻘뻘뻘 뻘뻘뻘 뻘뻘
아 구름가에 소골령아 아리랑에
눈물신고 허이허이 넘던 고개
오불꼬불 오솔길이 신작로로 되어서
행복한 신랑신부 꽃매미차 타고 가네

후렴: 에헤라 대골령 에헤라 소골령
매미차 타고서 얼씨구 절씨구 달린다
사랑의 노래 부르며 얼씨구 날리리
절씨구 날리리 날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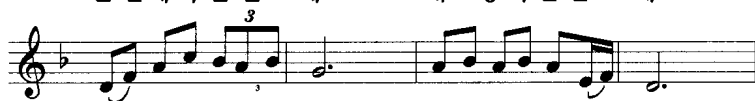
2. 하늘같이 높은 령아 뻘뻘뻘 뻘뻘뻘 뻘뻘
아 굽이굽이 굽이마다 한이 서린
굽이굽이 칠십리 험한 고개
저 건너 인삼처녀 어서 오라 손짓하고
반가와라 노루사슴 좋아라고 경충 뛰네

내 고향 진달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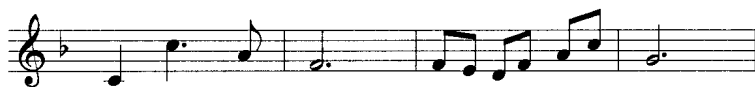
김봉호 작곡



진달래야진달 래 내 고향의진달 래
진달래야진달 래 내 고향의진달 래



눈 서리속에서 도 어여쁘게웃 누 나
비 바람사나와 도 네모습이 곱 구 나



산 골 마 다 뿌리박은진달 래
푸 르 큰 꿈 자유로이 날 아



정 열 에 불 타 는 백 두 의녘 이여라
지 구 촌 그어데 나 뿌리깊 이내렸 소